



니다. 이후 힘들 때마다, 새로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겨내고 있습니다.

**BEE수** : 동생 온유와 하연이와의 관계는 어때? 동생들 칭찬도 하나씩 해 주라~

**요한** : 한국에서의 홈스쿨 경험과 가나에서 힘든 시간을 서로 돕고 지낸 덕분에 저희 셋은 무척 사이가 좋은 편입니다. 물론 가끔 싸우고 빠치는 현실 남매지만 금세 사과하고 같이 놀며 지냅니다.

동생들은 칭찬할 부분이 참 많은데!! 온유는 끈기 있고 성실하고 두 살 차이 밖에 안 나는 제게 항상 존댓말을 씁니다. 하연이는 무엇보다 의리가 있고 저희 중에 제일 착한, 멋진 막내인데, 사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 까칠하다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가족들과 어렵고 힘든 경험들을 가정예배 때마다 나누는데 여동생들의 위로와 충고로 마음이 풀리기도 하고 힘을 많이 얻어요.



온유가 중학교 졸업하던 날

**BEE수** : 정말 멋진 남매구나!! 하나님이 특별히 너희 셋을 사랑하시나 봐!^^ 지금은 케냐에 있는데 케냐는 어때니? 가나와 많이 다르지?

**요한** : 케냐는 가나와 달리 날씨도 시원하고 환경도 훨씬 좋아요. 힘들었던 가나의 경험 덕분에 적응도 금세 했고 선교사님들이 선생님이신 학교에 다니며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어 좋습니다. 학교에서 상도 많이 받고, 수영 MVP가 되기도 하는 등 재미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은 너무 추워 감기에 걸릴 때도 있고, 가나와는 달리 한인 운동 시설이 없어 집에만 있어야 해서 힘든 면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영어, 스와힐리어, 다른 문화 등에 적응하기가 역시나 쉽지 않았어요. 많이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벅찰 만큼의 학교 과제로 바쁘게 하루를 보내다 보니, 가정예배와 말씀 암송에 소홀해지기도 했습니다. 가나보다 왠지 맛있는 음식들을 못 먹는 것 같기도 하고요.^^



유일하게 하얀 요한이 케냐에서 받은 상장들

**BEE수** : 우리 요한이가 케냐 학교에서 상도 많이 받고 수영으로 MVP도 되었다니 너무 기쁜 소식이네! 기도하는 분들도 더욱 신나서 기도하실 것 같아. 고등학교 마치고 계획하는 진로가 있니?

**요한** : 이렇게 아프리카에 오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아프리카가 발전은 되고 있지만, 아직 고통 속에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사가 되어 아픈 사람들도 돕고, 한국과 아프리카를 잇는 다리(linker)가 되어 복음도 전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탈장으로 진단받고 합병증으로 장괴사 등 응급상황이 올까봐 급하게 한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죠. 탈장이 아닌 정계정맥류 진단을 받고 수술도 받았습니다. 때마침 발견되어 수술받지 않았다면 불임의 원인이 된다고 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BEE수** : 작년에 한국 왔을 때 네가 존경하는 사람이 아버지라고 했는데, 아버지의 어떤 점을 닮고 싶니?

**요한** : 저는 아버지를 닮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 아버지가 한결같이 우리와 대화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모습을 닮고 싶



존경하고 닮고 싶은 아빠

어요. 아무리 피곤하시고 힘들 때도 제가 도움을 요청하면 항상 도와주십니다. 저도 커서 아버지가 되면 자식에게 꼭 이렇게 따뜻하고 멋진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BEE수** :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요한** : 항상 따뜻하게 돌봐 주시고, 좋은 교육과 또 말씀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해요. 생각지도 못하게 가나와 케냐에 와서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도 정말 감사하구요. 부모님이 저보다 더 힘드실 텐데 제가 속상하게 하고 많이

못 도와 드려서 죄송해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요. 제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힘 내세요!

**BEE수** : 아빠 엄마가 보시면 정말 힘이 나서 지금의 힘든 선교 상황을 거뜰히 이겨내실 것 같아. 인터뷰에 성실히 응해주어 너무 고마워 요한아~

**요한** : MK인 저에게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인터뷰를 통해 선교지에서 제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제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이때, BEE 식구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한국에 다시 가서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가면 먹고 싶은 음식이 너무 많아 고민이 된다는 평범한 청소년 요한이가 선교지에서 겪은 어려움을 묵묵히 적어 보낸 메일을 읽다가 몇 번이나 울컥했습니다. 어느새 어른이 되어 의료선교사를 준비하는 요한이의 상급학교 진학이 순조롭게 준비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BEE Korea의 모든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대표하는 인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BEE MK를 만날 소망을 품고 더욱 두 손을 모읍니다.

[ 인터뷰 글: 신요한(케냐 신동준 홍지연 선교사 첫째) 정리: 정주영 편집: 최선 ]

BEE의 보석찾기

16. 박은영 권사

\* 이번 주 보석 찾기 주인공입니다.



1990년 비가 억수같이 퍼붓는 7월 어느 날, 척추를 다치는 사고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해 12월 세례를 받았습니다. 2000년 김사무엘 목사님의 권유로 정재호 집사님(現 미국 거주,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갈라디아서를 통해 BEE에 입문하였고 2003년 싱가포르에서 조문상 목사님 가족을 만나면서 BEE 가족이 되었습니다.

현재 동아프리카 테이블 부리더로서 공동체 성경 읽기와 토요 기도지 전달, 동아프리카 선교사님과 테이블 식구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테이블 식구들을 만나고 있지만, 테이블 식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리더와 함께 테이블 식구들의 삶을 나누며 믿음을 키우는 동아프리카 테이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대식 장로와 한방을 쓰고 있으며 아들 둘, 며느리 하나가 있습니다. 온누리 마포 공동체와 교회 홍보관 사역(코로나19로 인해 중지)을 섬기고 있습니다.

\* BEE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BEE 소식

1. 2020년 하나님의 “준비하라”의 음성에 따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준비하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암4:12).”
2. 6월 13일(토)에 시작한 ‘영상학교’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BEE의 또 하나의 사역의 장인 Online 사역을 준비하는 충성된 일군들의 진지함과 헌신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